정보 TIP

광주 'IT 달인' 허현미씨 선정

광주시립도서관이 주최한 'IT 달인 선발대회'에서 30대 주부가 IT 달인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립도서관은 21일 광주시 남구 사직도서관에서 초·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컴퓨터·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IT 상식 및 정보화 사회 관련 퀴즈대회인 'IT 달인 선발대회'를 개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허현미(사진 왼쪽·37·여·광주시 남구 양림동)씨가 'IT 달인'에 뽑혔다고 밝혔다.

허씨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졌으며 이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IT 지원관리시스템 사업자 모집

광주시는 지역 IT기업 정보 및 지원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지원관리시스템 사업자를 모집한다.

기업지원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성장단계 분석, 수혜업체 성과 관리,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 현황관리,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입주 관련 신청서 온라인 접수, 지역IT·소프트웨어 기업 산업기반 조사 결과 입출력, 공용장비 예약 및 사용관리 기능 개발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2일 오후 3시까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or.kr)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IT사업팀(062-350-2441)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예인 쇼핑몰 '스타비스타' 오픈

국내 연예인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연예인브랜드 인터넷쇼핑몰 '스타비스타'(www.starvista.co.kr)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쇼핑몰에는 황보, 이선진, 한영, 겜블러,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참여하고 있다.

스타비스타는 또 다음 달에는 패션디자이너 하상백, 이보미, 구두디자이너 최정인 등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디자이너 브랜드 숍도 론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광주 'U-시티 구축' 실생활 어떤 변화 올까

정보통신기술(IT)이 발달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건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5㎡ 이상 규모의 U-시티 건설에는 사업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U-시티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행정안전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시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지하철'과 광주시 동구 '능동형 U-시티 안전망 구축' 등 전국 14개 지자체의 U-시티 사업을 지원한다. 광주시와 광주시 동구의 U-시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알아본다.

▶광주시 'U-광주 지하철' 20개 驛舍서 문화공연 생중계

〈역사〉

▶동구청 'U-시티 안전망' 독거노인 건강 이상땐 응급 호출

◇광주시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지하철'

광주시는 광주지하철에 U-IT 기술을 적용해 지하철의 U-문화 창출과 고도화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지하철'은 금남로4가역과 상무역 등 2개의 공연장에 IP카메라를 설치해 각 역사마다 문화미디어보드를 통한 생중계로 U-공연문화를 만든다.

또 터치 방식의 양방향 전달방식을 적용, 유실물 안내와 버스 환승 정보, 시민 UCC 등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 들어설 세계인권전시관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차세대 인식 기술) 안내단말기,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하는 U-전시관을 구성, U-시티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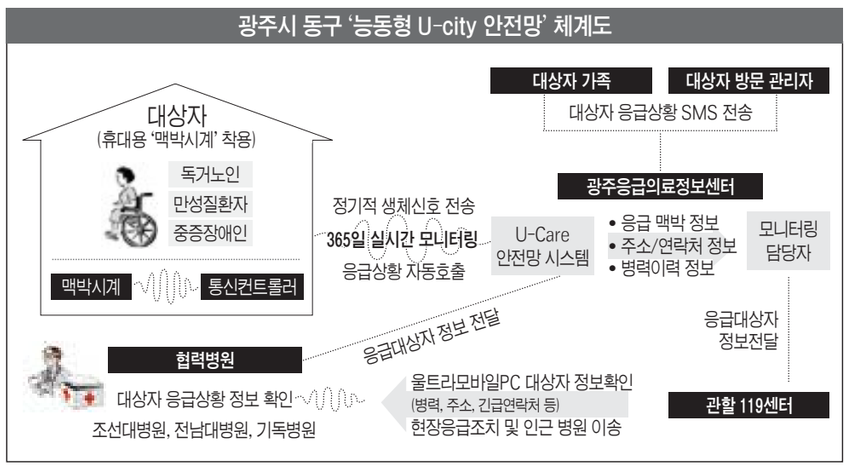
'안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영산강 하저터널 구간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하저터널안전관리서비스를 구축하고 차량기지를 포함한 22개 역사 시설물에 무선으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R-FID 기술을 적용해 노후화 예측, 교체시기 알림 서비스 등 시설물 예방 점검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또 민원이 잦은 급곡선 구간 4곳에 소음측정 센서를 이용한 터널소음측정관리시비스 등을 제공, 재해예방과 시민안전 서비스에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6억원, 시비 2억5천만원 등 총 8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며, 이달 하순께 세부적인 설계를 통해 본격 시작된다.

광주시 'U-광주지하철' 서비스 개념도

광주시 동구 '능동형 U-city 안전망' 체계도



◇광주 동구 '능동형 U-시티 안전망 구축'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사는 김모씨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씨의 손목에 차고 있던 '맥박시계'가 김씨의 맥박수 저하를 감지, 광주응급정보센터에 자동 응급 호출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119 구급센터에 구호요청함으로써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김씨는 생명을 구하게 됐다.

이 시나리오는 광주시 동구의 U-시티 사업인 '능동형 U-시티 안전망' 서비스의 기대 효과다.

'능동형 U-시티 안전망 구축' 사업은 독거노인 및 심혈관 질환자 등 위험에 노출된 관내 주민에게 전자시계를 착용토록 해 맥박에 이상이 생기면 광주응급의료센터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결,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병원 등으로 즉시 후송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맥박시계'라고 불리는 생체신호센서기술을 응용한 이 전자시계는 USB(Universal Serial Bus·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데 쓰이는 입출력기기) 통신 기능과 자동맥박 측정, 맥박데이터 관리, 알람·시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동구는 이 사업에 1차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수혜 대상을 늘려가는 등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이언스 Science

차분 하면 '진보' 화 잘내면 '보수'

美 연구팀 성격 따른 '정치 성향' 분석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신체적 기질에 의해 좌우돼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으며 차분한 사람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AP통신과 BBC뉴스가 보도했다.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실린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위협적인 시각 이미지에 신체적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외원조나 진보적인 이민 정책, 평화주의, 총기 규제를 지지한 반면 같은 자극에 대해 신체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방위예산이나 사형제도, 애국심,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이스대학과 네브래스카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 및 버지니아 심리행동유전연구소 합동 연구진은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선택한 조사대상자 46명의 정치적 신념을 성향별로 구분한 뒤 2차 실험에서 갑작스러운 소음과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에 붙은 거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 따위의 위협적인 이미지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 학교내 기도, 사형 제도 등 보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극에 강력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외원조나 평화주의, 동성(同性)결혼, 낙태허용 등 진보적 정책을 지지한 사람들은 보다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실험에서 정치적 태도가 신체적 반응을 좌우하는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애초에 다른 심리적 상태에서 출발해 이 세계와 각종 위협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면서 "이들의 매우 다른 신체적 기질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깊이 뿌리박힌 반사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IT강국 위협 받는다

경쟁력 세계 8위 … 지난해보다 5단계 추락

한국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의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IT 산업 경쟁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1점으로 지난해보다 5계단 떨어진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IT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부문의 양과 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 세계 3위 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대만,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에 밀리면서 IT 최강국에서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IT 경쟁력 세계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74.6점)이었으며 대만(69.2점), 영국(67.2점), 스웨덴(66점), 덴마크(65.2점), 캐나다(64.4점), 호주(64.1점)가 그 뒤를 이었다. 호주는 한국과 총점은 같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앞서 7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은 지난해 세계 6위에서 올해 2위로 도약해 눈길을 끌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도 지난해보다 각각 3계단씩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2위였던 일본(62.2점)은 올해 12위로 급락했고 독일이 19위(55.4점), 프랑스가 20위(54.3점), 중국이 50위(27.6점)를 각각 차지했다.

/연합뉴스